

연기 위해 불의와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이 변개하니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사망의 길로 가지요.

니콜라 당의 행위는 이와는 다릅니다. 행함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함께 사망의 길로 갑니다. 또한 니콜라 당은 사상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즉 행함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인데, 행함으로 죄를 지어도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 해서 무조건 니콜라 당의 행위는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는 알면서도 말씀을 지킬 힘이 부족해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이때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니콜라 당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는 자가 발람의 행위를 좇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니콜라 당의 사상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란 하나님 말씀을 뜻하므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적해 줌으로 돌아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아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가 깨달아 돌아킨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 자녀라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잠 22:17). 때로는 말씀이 채찍과 같이 다가온다 할지

라도 듣고 깨달아 돌아키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 높아져 있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악한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잠 17:4).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이단 사상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었다 해도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켜야 하지요.

4. 오늘날 버가모 교회에 해당하는 경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 물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교묘히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흔히 상대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된 말이나 행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요일 2:22).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요일 4:1~3).

주님께서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로써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와 유사한 교회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을 경계하셨는데, 이는 마음에

있는 육의 속성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며, 또한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권능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설령 이단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지칭합니다. 원래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갹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출 16:31). 그런데 이 만나는 단지 육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잠시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 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살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나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당주의 신앙과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키면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만나를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섭리는 이미 만세 전에 정해졌지만, 이 비밀이 때가 이르기까지는 알려져서는 안 되므로 감추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

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고전 2:7~8).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외에도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다는 것은 죄와 악이 없다는 뜻이므로 ‘흰돌’이란 ‘어둠에 속한 어떠한 죄악도 없으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죄악과 싸워 이기며, 만나인 주님의 살 즉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행해 나감으로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마 7:24~25).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행 4:11~1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 진리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며 입으로 ‘주여 믿습시다’ 고백한다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야 참으로 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와 흰돌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죄악을 벗어 버림으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말하며, 결국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감추었던 만나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만이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편에서 주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안다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온전히 소유할 뿐 아니라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토 뷰 (Photo View)

Surprise!

◆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 천사
- 믿음의 선진들
- 놀이동산
- 열대어
- 진주
- 돌고래
- 사자

